

시인은 모국어 속의 이방인

박해현

조선일보 문학 전문 기자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눈에 자주 띄는 시가 몇 편이 있다. 그중 김승희 시인의 시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가 있다. ‘가장 낮은 곳에 / 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 /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 / 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들 / (중략) / 그래도라는 섬에서 / 그래도 부동켜안고 / 그래도 손만 놓지 않는다면’이라면서 ‘그래도’라는 단어로 말놀이를 이어 간 작품이다. 그래도(鳥)라는 섬은 실제로 있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가상의 섬을 지어내고, 삶이 힘들더라 ‘도’ 살아 내자고 격려하는 시인의 메시지가 그래도 꽤 설득력 있게 울린다.

시력(詩歷) 45년이 넘는 김승희 시인은 2년 전에 낸 시집 《도미는 도마 위에서》에서도 언어유희를 발랄하게 펼쳤다. 시인은 “시라는 게 원래 말장난이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시집에 수록된 작품들 중에서 시 〈좌파/우파/허파〉가 말장난의 대표작이다. ‘시곷바늘은 12시부터 6시까지 우파로 돌다가 / 6시부터 12시까지는 좌파로 돈다 / 미친 사람 빼고, 시계가 좌파라고, 우파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 (중략) / 시곷바늘도 세수도 구두도 스트레칭도 /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은 돈다’라며 경직된 좌우 이념 대결의 세태를 조롱한 것. 시인의 말장난은 시인의 현실 감각을 대변하고, 풍자의 중요한 무기가 된다.

김승희의 언어유희는 시 〈무지개의 기지개〉에서도 두드러진다. ‘무지개는 비를 기억하지 않지만 / 비는 얼마나 무지개를 열었던 것일까’라며 무지개가 피는 순간을 다뤘다. 비가 그치고 날이 갠 과정을 ‘기지개 켜는 무지개’로 의인화했다. 시 〈기도하는 사람〉도 패러디에 의한 말놀이를 보여 준다. ‘기도를 많이 하다가 / 기도 안에 갇힌 사람 / 기도 안에 갇혀 / 기도를 미워하게 된 사람 / 기도를 버린 사람 / 기도를 버리고 나니 / 아픈 만큼 기도가 보이게 된 사람’이라는 시행에서 ‘기도’는 베케트의 부조리극 〈고도를 기다리며〉의 ‘고도’와 연결된다. ‘고도’가 상징하는 절대 존재를 기다리는 기도를 올리지만, 그 소망의 집착을 포기할 때 ‘비로소 기도가 시작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시는 원래 말장난이지 않은가.”라는 게 김승희 시인만의 시론은 아니다. 말놀이를 즐기는 시인들은 원래 많았고, 요즘 한국 시단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시의 말연 내용을 중시하는 리얼리즘이나 시인의 개인 감정 표현을 내세운 서정시의 전통이 지배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시적 자유를, 언어유희를 통해 구가하는 시인들이 늘어난 듯하다. 언어의 해묵은 의미를 벗어던지고 풋풋한 언어를 산출하려는, 시의 원초적 욕망을 활성화하는 경향이 대세를 이루는 것은 아닐까.

시가 일상 언어를 사용하되 그 의미의 일상성에서 벗어난 해방의 언어를 실천하는 언어 행위라고 하지만, 더 나아가서 시인은 그 일상 언어의 틀 자체를 파괴하고 낯선 언어를 그 자리에 세우기도 한다. 최근 캐나다의 그리핀 시문학상을 받은 김혜순 시인은 신작 시집 《날개 환상통》에서 ‘새하다(문맥에 따라 ‘새가 되다’, ‘새처럼 날다’, ‘새를 울게 하다’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시인의 말놀이)’라는 신조어를 두드러지게 사용했다. ‘이 시집은 책은 아니지만 / 새하는 순서 / 그 순서의 기록’이라며 ‘새의 뺨을 만지며 / 새하는 날의 기록’이라거나 ‘새하는 여자를 보고서도 / 시가 모르는 척하는 순서’라고도 했다.

김혜순의 언어 ‘새하다’는 격정적인 삶의 몸짓이기도 하다. ‘내 몸에서 내가 씨를 심은 새들이 울퉁불퉁 만져졌음, 해 / 네 피가 새의 피로 새로 채워졌음, 해’라는 시인은 음성은 격하고 탁한 소리를 낸다. ‘네 목구멍이 목마름으로 타들어 가듯 / 내 몸의 새가 타올랐음, 해 / 킥킥 네 입술 밖으로 연기가 새어 나오고 / 내 몸에 앉고 싶은 새가 더 더 더 달아오르는 나날 / 쿵쿵 울리는 심장의 등지에서 / 쿵 소리 한 번에 새 한 마리씩’이라며 이어지는 시인의 진술은 마치 주술처럼 들린다. ‘새’는 명사가 됐다가, ‘새로’처럼 부사로 날아올랐다가 ‘쿵’ 소리가 되기도 한다. ‘쿵’ 소리는 ‘새’를 느끼는 시인의 심장에서 나는 소리가 아닐까. 그것은 낙하를 가리키는 일상적 의미보다는 도약을 알리는 고동(鼓動)을 떠올리게 한다. ‘쿵’ 하면서 ‘새’가 심장에 충격을 주는 것이고, 새의 날갯짓은 쿵쿵거리며 삶을 그때그때 뒤흔든다. 새는 새로이 새로 태어난다.

‘가까이서 보면 새들은 모두 중력을 거슬러 움직이는 내 안의 물처럼 / 철썩철썩 한 바가지씩 공중에서 엮어진 물처럼 / 저마다 기형이다 / 새를 호명하다가 이렇게 되었다 / 더 가까이서 보면 모두 전류에 지지지고 있다 / 물인 줄 알았는데 발광체다’라는 시행을 통해 새는 자유 의지의 힘으로 움직이는 하늘의 물로 그려진다. 그것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빛을 뿜어내는 현상으로 존재하는 움직임 그 자체다. 규정될 수 없기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 새는 새의 의미에서도 자유롭게 벗어나 있다.

김혜순 시집에 해설을 쓴 평론가 이광호는 상세하게 ‘새하다’의 뜻풀이를 내놓았다. “새라고 하는 명사에 ‘하다’라는 행동이나 작용을 이루는 술어가 붙어 있는 것은 어색하다. 새가 주어가 되는 ‘새가 무엇을 하다’라는 문장이나, ‘새가 되다’ 혹은 ‘새가 어떻게 하다’라는 문장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새하다’라는 구문에서 ‘새’가 주어인가 목적어인가도 분명하지 않다. ‘새’의 위치가 주어도 목적어도 될 수 없거나 혹은 둘 다 될 수 있는 이 모호함이 이 문장을 시적인 것으로 만든다.”

김혜순의 ‘새하다’는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새처럼 날고 싶다’는 진부한 문장을 대신하기 위해 압축된 동사로 볼 수도 있다. 이상의 <오감도(烏瞰圖)>가 기존에 쓰이던 ‘조감도(鳥瞰圖)’ 중 한 글자를 바꿈으로써 단순히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본다는 조감도가 아니라, 까마귀의 이미지를 살려 음울하고 기이한 세상의 풍경을 암시하였음을 떠올리게 된다. 김혜순은 이상에게 바치는 시를 쓰기도 했다.

‘김경의 시에선 13인의 아해가 도로를 질주하고 / 김혜순의 시에선 아해들 머리 위로 13마리의 새가 하늘을 질주한다 / 13마리의 새가 땅에선 보이지도 않을 높이를 날아간다 / 8일째 먹지도 자지도 않고 날아간다 / 너무 높아서 까만 하늘을 날아간다 / 제1의 새가 무섭다고 그린다 / 제2의 새는 내가 죽었냐고 그린다 / 제3의 새는 설사가 터진다고 그린다 / 제4의 새는 한번 길게 울더니 떨어져 버린다’라며 씩씩이 이어진다.

정끝별 시인도 말놀이에 관한 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시 세계를 펼쳐 왔다. 그의 신작 시집 <봄이고 침이고 덤입니다>는 제목에서부터 말놀이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 시집을 펼치면 첫 시 <춤>의 한 시구가 책 제목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 숨은 / 심이나 빔에 머물니다’라고 시작한 시인은 들고 나는 숨의 거처를 운동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정(靜), 공(空)에 두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시인이 바라는 삶의 양상이기도 하다. 이어서 시인의 말놀이가 현란하게 펼쳐진다. ‘섬과 둠에 낸 한 째의 보름이고 / 가끔과 어쩔에 낸 한 째의 그름입니다’라는 것.

더 읽어 가면 ‘그래야 봄이고 침이고 덤입니다’는 한 행이 독자적으로 한 연을 이룬다. 게다가 ‘내 맘은 / 뺨이나 품에 머물니다 / 님과 남과 놈에 깃든 한 뺨의 감금이고 / 요람과 바람과 범람에 깃든 한 뺨의 채움입니다’라더니 ‘그래야 점이고 섬이고 움입니다’라는 것.

이미 확연히 드러난 것처럼 이 시는 ‘ㅁ’ 받침으로 이뤄진 음절의 말놀이에 흠뻑 빠져 있다. 시를 더 읽어 보면 ‘꿈만 같은 잠의 / 흠과 틈에 든 웃음이고 /

짐과 담과 금에서 멈춘 울음입니다'라더니 '그러니까 내 말은 / 두 입술이 맛 부딪쳐 머금은 숨이 / 땀이고 힘이고 참이고 / 춤만 같은 삶의 / 몸부림이나 안간힘이라는 겁니다'라며 마무리된다. 시인이 사랑하는 단어는 꿈과 잠이고, 흠과 틈, 웃음인데, 짐과 담과 금, 울음은 멀리하는 단어라는 것이다. 시인은 꿈과 짐 사이에 삶의 몸부림이나 안간힘이 있다고 한다.

2000년대에 들어선 등단한 시인 그룹에서 말놀이,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시인은 오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젊은 세대의 언어 감각에 의한 말놀이 향연을 풍성하게 보여준다. 그의 시 'ㄹ놀이'가 대표적이다. 그 부분을 읽어 보면 이렇다.

오늘도 너는 말놀이를 한다. 재잘재잘. 도중에 말이 막히면 너는 물을 마신다. 벌컥벌컥. 그리고 너는 물놀이를 한다. 침병침병. 도중에 배가 고프면 너는 미음을 먹는다. 허겁지겁. 그리고 너는 맛놀이를 한다. 우적우적. 도중에 배가 부르면 너는 몸놀이를 한다. 폴짝폴짝. 그리고 너는 망놀이를 한다. 호시탐탐. 도중에 도둑을 잡으면 너는 멋놀이를 한다. 찰랑찰랑. 그리고 너는 무(無)놀이를 한다.

시인은 말, 물, 미음, 맛, 망, 멋, 무로 이어지는 명사를 꾸미는 놀이의 풍경을 제시한다. 그의 말놀이는 꿈, 멸미, 맥, 먹, 멧, 맘, 마음으로 연결된다. '미음'의 무한한 확장 놀이는 '미음을 먹는다'처럼 동음이의어를 쓰다가 '마음을 먹는다'처럼 말의 변형을 덧붙이기도 한다. 시인이 설계하고 건설하는 'ㄹ'의 나라는 말과 말이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어울려 놀이를 즐기는 말의 유토피아를 가리킨다. 그것은 '무(無)놀이'의 세계라는 점에서 아득하기만 하다. 오은의 'ㄹ' 사랑은 시집 서문에서도 확인된다. '꿀맛이 왜 달콤한 줄 아니? 꿀맛도 아니고 꾸는 맛도 아니어서 그래. 미래니까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라는 것이다.

오은의 말놀이는 시 '문법'에서도 활기차다. '존재하는 것이 거의 없으므

로 규칙은 견고하고 / 불규칙은 물결치므로 / 그 틈을 비집고 / 새삼스러운 문장이 튀어나올 때'라면서 완고한 문법의 틈을 비집고 물결치는 '새삼스러운 문장'을 지향하는 시인의 초상이 도드라진다. 시인이 머무는 언어의 방은 그리하여 '이 방이 조금 아름다워진다 / 이 방이 조금 이채로워진다 / 이 방이 이방(異邦)에 가까워진다 / 비로소'라는 것이다. 시인은 결국 모국어(를 이방인(異邦人)처럼 구사하는 존재라는 얘기가 된다. 시는 모국어 속에서 외국어 혹은 외계어를 찾아내는 것이란 어느 시인의 말도 생각한다.

평론가 권혁웅은 오은의 말놀이 시를 크게 주목했다. "오은의 시는 현대의 도시락 폭탄이다. 흥겨운 피크닉 장소를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또 다른 흥겨움이며, 시를 전복하는 시들을 전복하는 또 다른 전복이다."라는 것. 그는 오은의 말놀이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언어를 통한 혁명이라고까지 평가했다. '표면의 서사가 이름 붙인 저 놀이가 세계를 해체하고 재구축하는 놀이라면, 혁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것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다.'

시인의 말놀이는 '사물에 대한 새로운 글쓰기'라는 차원에서 이뤄진다. 신영배 시인이 최근 낸 산문집 《물사물 생활자》가 그런 측면에서 눈길을 끌었다. 시와 산문의 경계를 벗어난 시이자 산문을 통해 '물사물'이란 낯선 단어를 곳곳에서 구사한다. '물사물'은 시의 물 이미지 속에서 나온 사물이며, 상상과 자유 속에 떠 있는 사물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녀의 방에는 많은 물사물이 있다. 그 수는 어제 열었던 냉장고와 오늘 연 냉장고를 따로 세는 것과 같아서 한없이 부풀릴 수 있다.'라고 시작한 산문은 '물사물은 켤 수 없고, 명령을 내릴 수 없고, 거래할 수 없고, 소비할 수 없고, 하지만 꿈에 연결되어 있고, 하지만 정의할 수 없고, 하지만 생활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 물사물은 물(物)과 물 사이이기도 하고 물과 물의 연결이나 사물의 개별성을 가리키는 단어지만, 물(水)처럼 유동하기 때문에 고정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생활이고 삶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물사물'은 물의 이미지처럼 부드러운 여성적 삶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평

화를 그려 낸다. 산문집에 실린 ‘달빛물안경’은 이렇다. ‘달빛, 사물이 놓여 있다 / 물, 물빛에 옷을 벗었다’라는 도입부에서 사물은 저마다 틀의 경계를 벗어던진다. ‘물, 물의 옷은 희미하다. 보일 듯 말 듯하다. / 안경, 물로 꾸는 꿈이다. / 달빛물안경, 부드럽다. / 다시 달빛, 여자들이 쓰러져 있다. / 물, 물의 옷은 약하다. 약한 말이다.’

신영배 시인은 더 나아가서 ‘물랑’의 말장난도 내놓았다. ‘귀는 점점 물랑 해졌다 / 귓속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 귓속에서 새가 움직였다 / 점점 출렁였다 / 새가 울었다 / 물랑, / 그때 그녀는 나타난다 / “귓속에 든 새를 어디에 풀어놓을까?” / 그녀와 나는 걸어갔다.’

‘물랑’은 ‘물랑물랑’에서 나온 것일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물랑물랑’은 ‘물렁물렁’의 제주 방언이라고 한다. 하지만 신영배의 시에서 ‘물랑’은 그 뜻 풀이에 갇히지 않는다. ‘물랑’은 그 발음의 어감처럼 유동적이고, 출렁이는 말이다. 그렇게 물결치는 삶이기도 하다.